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프랑스(1)



배 순 덕
화가 · 호는창랑

샤를 드골공항에서 대기중인 버스를 타고 곧바로 파리 시내로 접어드는 길이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 내린다.

그러나
괴로움에 이어오는 기쁨을
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증은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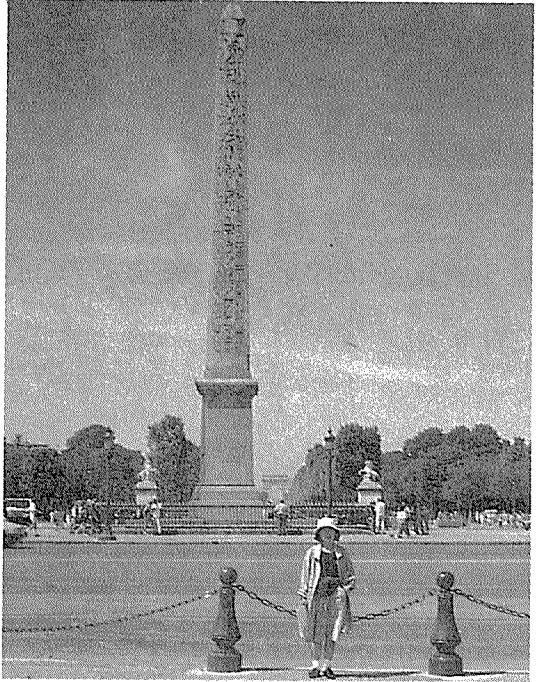
.....

차가 파리 시가지를 동서로 흘러가는 세느강의 다리 위를 지날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젊은 안내인은 서툰 감정을 섞어가며 시인 「아폴리네르」의 그 유명한 시귀절을 읊었다.

파리의 지반이 단단해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았던 18세기 무렵에는 파리지민들의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었던 세느강 위에는 모두 32개의 다리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영화 「퐁 뉘프의 연인들」에 등장하였던 퐁 뉘프 다리이고 시나 상송으로 불려져 널리 알려진 미라보다리, 비르아캥다리, 투르넬다리 등이 유명하다.

퐁피두센터 옆에 차가 멈춰서자 모두들 화장실에 가고 싶어했다. 그런데 화장실은 유료이고, 공항에서 곧 바로 빠져나오느라 우리는 환전을 하지 못했다. 안내인이 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반가웠는데 내

콩코르드광장의 중앙에 있는 ▶
 오벨리스크. 높이가 23m인
 이 탑은 발리왕의 업적을 상형
 문자로 적어놓은 것으로,
 원래 이집트에 있던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차례가 되자 그 남자가 앞을 가로
 막고 물었다.

“당신 한국사람입니까?”

어이가 없어 그 남자를 가만히
 건너다 봤더니 옆의 일행들이 까
 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꼭 잡고 대
 신 고개를 끄덕여 줬다. 그 같이 어이없는
 일은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한 차례 더 있
 었다.

그 며칠 뒤 노틀담 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사원 안의 어느 유료시설 앞에서 계산
 을 하다가 이번에도 그 가이드는 내게 한
 국사람이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단장인 ㄱ
 교수께서, 한국사람이고 우리 일행이 분명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파안대소했다. 참으
 로 황당한 일이었다. 흰 모자를 눌러쓰고
 스케치북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 것을 빼고
 는 다른 일행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는
 데 그는 두번씩이나 내게 그런 실수를 해
 왔다.

퐁피두 센터는 거대한 기계처럼 보이는
 초현대식 미술관이다. 처음에는 파리의 경

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으나 지
 금은 파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미
 술관이 되었다고 한다. 광장 주변에는 카
 세트라디오를 틀어 놓고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젊은이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순백의 웨딩드레스
 를 입은 신부, 거리의 화가와 이를 구경하
 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아주 자유롭고 재미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었다.

프랑스 대혁명 기간동안 천여명이 단두
 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피의 광장 콩고르드
 는 원래 루이15세 때에 국가의 관리가 왕
 에게 바쳤다 하여 ‘루이15세 광장’이라고
 불리웠던 곳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자 루이15세의 기마상이 있던 곳에는 단두
 대가 대신 놓여져 수많은 생명들이 단두대
 의 이슬로 사라졌었다. 그것이 지금은 화



▲개선문에서 바라다 본 주택가 풍경. 파리의 주택가에는 건물마다 사용되지 않는 글썽이 상징처럼 붙어 있다.

해와 조화를 뜻하는 ‘콩고르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콩고르드광장의 중앙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높이 23m의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 양쪽에 두개의 분수가 있다. 분수 주변의 돌계단에는 광장을 구경하다 지친 여행객들이 여기저기에 앉아서 쉬고 있다. 광장의 외곽으로는 다섯개의 앉아 있는 여인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파리, 마르세이유, 리옹 등의 다섯개 도시를 상징하는 여인들로 화합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날 오후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무성한 샹제리제 거리를 지나 우리가 안내 되어진 곳은 어느 커다란 백화점 앞이었다. 안내인은 백화점 안의 내부구조와 판매되는 품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며 몇시간동안 자유시간을 줄테니 마음껏 쇼핑하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역사적인 장소나 문화 예술관 등에서는 겨우 한두시간을 주어, 더 보고 싶어하는

데도 시간이 없다하며 내 쫓기듯이 물러나게 해놓고 쇼핑을 하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다니. 다음에 또 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여행사를 통한 짝 짝여진 여행보다는 배낭을 둘러 맨 자유로운 여행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다. 물건은 사지 않더라도 일단은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환전을 하기 위해 이층으로 올라가니 어느 사이 올라온 일행들이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화장품, 선그라스, 찻잔, 스카프, 향수, 옷, 그밖의 여러가지 희귀한 기념품 등,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갖가지 유명브랜드 상품들이 내가 봐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휘황 찬란했고 눈이 부셨다. 더구나 그곳의 점원들은 우리가 굳이 불어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일본인이거나 한국인 여성들이었다. ㉞